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원장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목 차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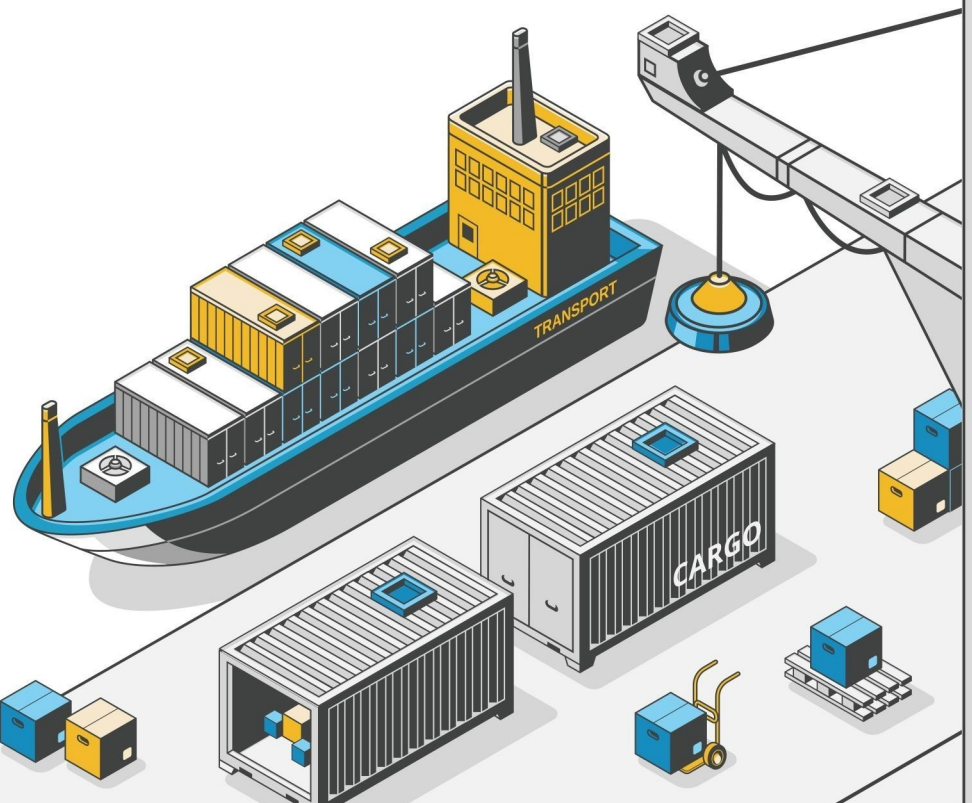
- 필리핀 SCMB 화물철도, 물류효율성 개선 등 핵심 물류인프라 역할 수행 전망
- 조호르-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, 세제 인센티브 및 교통 인프라 확충

▶ 공지사항

- 『우수물류기업 인증제』 모집 공고
-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▶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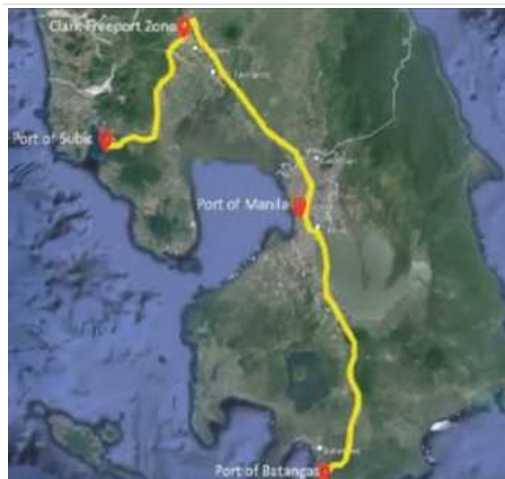
- 미중 무역, 올 하반기 물류수요 둔화 ... 유럽은 반등세 뚜렷



필리핀 SCMB 화물철도, 물류효율성 개선 등 핵심 물류인프라 역할 수행 전망

- ▶ 지난달 미국 무역개발청(USTDA)이 필리핀 교통부와 SCMB 화물철도 구축 관련 기술지원 협정에 서명하면서 중국 투자 철회로 중단된 사업 재개
 - 본 협정에 포함되는 SCMB(Subic-Clark-Manila-Batangas)는 수빅부터 바탕가스까지 약 212km에 달하는 구간을 연결하는 화물 전용 철도망임
 - SCMB 철도망은 루손섬의 4대 핵심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해 LEC(Luzon Economic Corridor)의 연결성 및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이번 미국 기술지원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해 물류 수요 예측, 항만-철도 통합 모델, 법·제도 설계와 환경 및 사회 영향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음
 - 과거 중국은 '22년 자금 집행 지연 및 정책 변화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으며, 이후 SCMB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이번 미국이 투자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됨
 - USTDA는 동 협정을 통해 자국 철도기술 및 안전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기반 마련 등 전략적으로 필리핀 시장에 투자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

필리핀 SCMB 화물철도 사업 본격화



SCMB(Subic-Clark-Manila-Batangas) 노선



LEC(Luzon Economic Corridor) 노선

자료: Philippine Train Enthusiasts and Railfans Club (PTERC), <https://malaya.com> (검색일: 2025.07.02.)

- ▶ 본 철도망이 활성화 될 경우 필리핀 내 물류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마닐라 항만의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물류구조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
 - 필리핀 정부 및 USTDA는 본 철도망이 마닐라 항만의 지속적인 혼잡 및 교통 체증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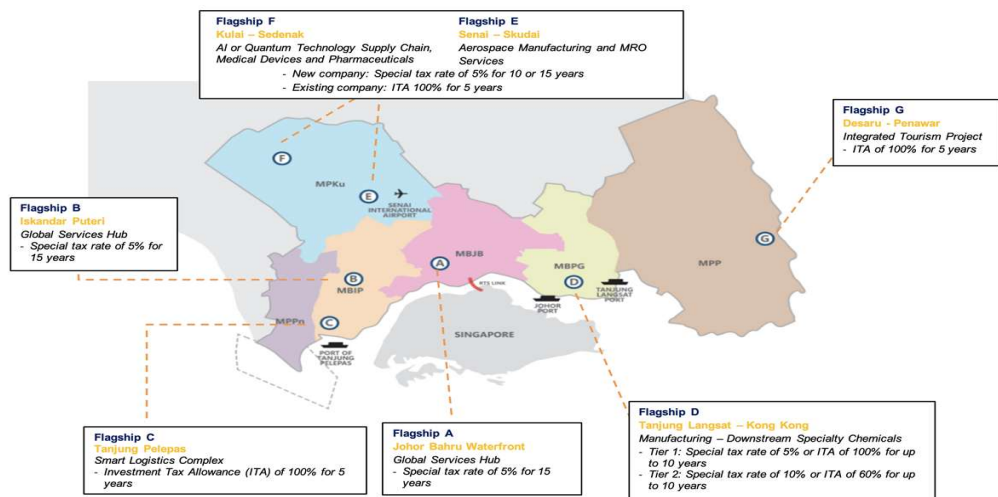
- 해결과 항만물류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또한 본 화물 철도를 통해 마닐라항의 혼잡 및 교통 정체 해소와 함께 수빅항 및 바탕가스항 등 타 항만의 활용도를 높이고, 마닐라항으로 집중된 물동량 재분배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
- 즉 SCMB를 통해 타 항만으로의 물동량 분산 효과 증대 및 특정 항만의 의존도 감소를 통해 필리핀 주요 수출입 항만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

- SCMB 철도는 아시아-태평양 물류 회랑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, 글로벌 물류거점 구축 관점에서 우리 기업 또한 해당 철도망 연계 복합물류 루트를 적극 활용해 아세안 시장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필요
- SCMB 철도망은 수빅항 및 바탕가스항 등 기존 마닐라항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필리핀 물류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견됨
- 이에 우리 물류 기업 또한 기존 마닐라항 중심의 물류 운영전략에서 수빅항 및 바탕가스항 등 소형 항만에 대한 투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- 또한 도로, 철도, 항만 등 복합 물류 체계가 용이한 수빅 지역의 경우 종합 물류 허브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 물류센터 구축 및 부지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

조호르-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,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교통 인프라 확충

- ▶ 말레이시아 정부가 조호르-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(JS-SEZ)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세제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함
 -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재무부와 조호르 주정부는 조호르-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를 공식 발표함
 - 동 인센티브 정책은 제조업을 비롯해 물류, 관광, 디지털 경제 등자국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및 국내 투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추진됨

JS-SEZ 세제 인센티브 제공 지역



자료: <https://www.crowe.com/> (검색일: 2025.07.02.)

- ▶ 조호르-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은 총 9개의 플래그십(Flagship)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가운데 7개 지역(A~G)이 MIDA(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)가 관리하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지임
 - Johor Bahru Waterfront(Flagship A)와 Iskandar Puteri(Flagship B)는 ‘글로벌 서비스 허브’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대해 15년간 5% 특별 소득세율을 적용함
 - Tanjung Pelepas(Flagship C)는 ‘스마트 물류 복합단지’ 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% 투자세액공제(ITA)를 제공함
 - Tanjung Langsat-Kong Kong(Flagship D)은 ‘다운스트림 특수화학 제조’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5%~10% 특별세율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
 - Senai-Skudai(Flagship E)는 ‘항공우주 제조 및 MRO 서비스’ 기업에 대해 최대 15년간 5% 특별세율 또는 기존 기업 대상 ITA를 부여함

- Kulai-Sedenak(Flagship F)은 'AI·양자기술 공급망', '의료기기', '의약품' 분야 신규 제조 투자에 대해 특별세율 또는 ITA 혜택을 제공함
- Desaru-Penawar(Flagship G)의 경우 '통합 관광 프로젝트' 투자 시, 5년간 100%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법정소득의 70%까지 공제함

JS-SEZ 세제 인센티브 주요 내용

지역(Flagship)	주요 사업	인센티브
Johor Bahru Waterfront(A)	글로벌 서비스 허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5년간 무역 및 서비스 소득에 대해 5% 법인세율
Iskandar Puteri(B)		
Tanjung Pelepas(C)	스마트 물류 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년간 투자세액공제(ITA) 100%, 법정 소득(SI)의 100%와 상계 가능
Tanjung Langsat-Kong Kong(D)	제조-다운스트림 특수화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택형 인센티브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특별 법인세율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Tier 1: 5% 법인세율 최대 10년(5+5년) - Tier 2: 10% 법인세율 최대 10년 ② 또는 ITA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Tier 1: 10년간 ITA 100%, 법정 소득 100%와 상계 가능 - Tier 2: 10년간 ITA 60%, 법정 소득 100%와 상계 가능
Senai-Skudai(E)	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 회사: 15년간 5% 법인세율 또는 10년간 5% 법인세율 중 선택 기존 회사: 5년간 ITA 100%, 법정 소득 100%와 상계 가능
Kulai-Sedenak(F)		
Desaru-Penawar(G)	통합 관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년간 ITA 100%, 법정 소득의 최대 70%까지 상계 가능

자료: <https://www.crowe.com/>(검색일: 2025.07.02.)

- 모든 지원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한 공통 요건이 적용됨
 - 신청 기업은 말레이시아 법인으로서 최소 250만MYR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, 프로젝트당 최소 5억MYR의 자본투자를 해야 함
 - 총 상시 근로자의 80% 이상을 말레이시아 국민으로 고용하고, 고임금(월 10,000MYR) 직무의 30~50% 이상을 말레이시아인이 담당해야 함
 - IR4.0 기술 도입, ESG 기준 준수, 로컬 서비스·공급망 활용,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, 신입 졸업생 채용 등도 의무사항으로 포함됨
 - 기업은 사업 개시 전에 MIDA(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)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승인후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연간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- JS-SEZ 세제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
 -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신청접수를 받으며, 기업은 승인받은 플래그십 지역에서 승인된 프로젝트 유형에 맞춰 운영해야 함
 - 본 조치는 조호르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산업 다각화에 기여하고, 싱가포르와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

- 한편, 2026년 12월 운행될 RTS Link로 인해 JS-SEZ의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
 - RTS Link는 싱가포르 우드랜즈 노스역과 조호르바루 부킷 차가르역을 연결하는 4km 경 전철 노선임
 - 본 노선은 매일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 운행될 예정이며, 예상 소요시간은 약 5분으로 시간당 최대 1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으며, 양국 간 출입국 심사를 출발역에서 모두 처리하여 도착 후 즉시 이동이 가능함
 - RTS Link의 현재 공정률은 56%이며,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2025년 6월 30일 싱가포르 투아스 철도 시험센터에서 첫 번째 차량을 공동 공개함
 - RTS Link의 본격 운영될 경우, 통근자 수송 편의성 증대, 물류 이동성 개선, 국경 간 경제 활동 증진 등 다각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
 - 운임 정책은 현재 시장조사 단계에 있으며, 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합리적 요금체계를 설계할 예정임

- JS-SEZ 세제 인센티브와 RTS Link 개통은 말레이시아-싱가포르 양국 간 경제 통합을 가속화할 전망이다
 - 양국 정부는 산업별 투자 확대, 물류·관광·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, 국경 간 노동력 이동 촉진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
 - 기업은 이번 인센티브와 인프라 확대를 활용해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미중 무역, 올 하반기 물류수요 둔화 ... 유럽은 반등세 뚜렷

- ▶ 올 하반기 미중 해상운송은 화주의 과잉 재고 보유 및 선적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세 인상과 美 경기불황 지속으로 물동량과 운임 모두 급감할 것으로 예상
 - 오는 7월 9일, 미국의 글로벌 관세 90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관세 정책의 방향과 무관하게 아시아발 태평양 횡단 해상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 - BIMCO는 화주들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기 선적(front-loading)을 지속해 이미 재고가 포화 상태에 있으며, 수입 관세 인상 가능성과 미국 경제 성장둔화로 인해 하반기 수입물동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
 - 이에 아시아발 美 서안행 운임은 지난 6월 초 6,040\$/FEU로 크게 상승했으나, 7월 초 2,800\$/FEU로 54% 급락했으며 전주 대비 13% 하락함
 - 전문가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고 145%를 부여한 관세가 對中 상호관세 유예종료일인 8월 12일 이후 55%로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, 향후 美 수입업체는 상반기 내 그간 수입한 재고 소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함

아시아~미주 컨테이너(FEU) 스팟운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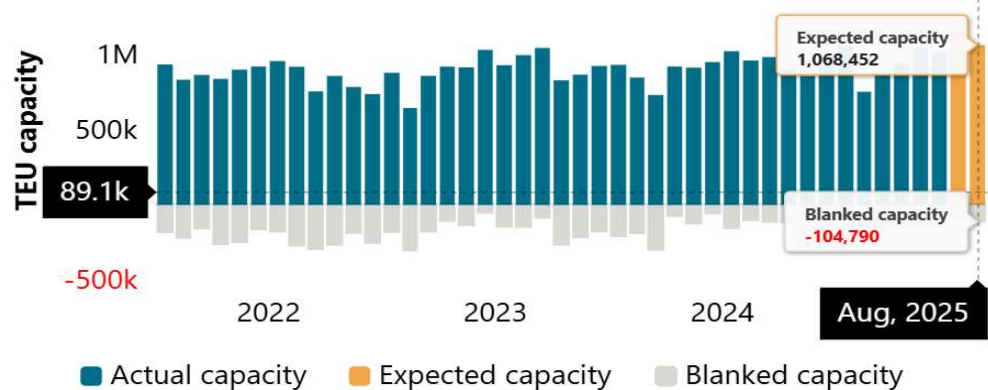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Platts, S&P Global (검색일: 2025.07.02.)

- ▶ 반면, 유럽은 최근 경제 환경 개선과 소비력 회복으로 아시아-유럽 항로는 성수기에 접어들어 수요와 운임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
 - BIMCO는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의 '25년 물동량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.5%에서 6%로 상향 조정했는데, 이는 EU 소비자의 구매력이 상당 수준 회복했으며 소매 판매량이 '24년 하반기와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
 - 또한 지난 상반기(1~4월) 동안 EU의 물동량이 전년 대비 7.3% 증가했고, 물가 상승률 둔화, 금리 인하, 실업률 감소, 유로화 강세 등으로 유럽경제 환경이 개선된 결과임

- 이에 5월 말 이후 아시아~북유럽행 스팟 운임은 49% 상승해 2,842\$/FEU에 달했으며, 상반기 유럽 및 지중해행 물동량도 7.3% 증가함
-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사들은 8월 선복을 7월(1,158,040TEU) 대비 90,000 TEU 줄이고, 결항을 25%(7월 85,727TEU) 증가시키는 운영 전략을 통해 수급 상황에 따라 운임 증가가 예상됨

아시아~유럽 컨테이너선 선복 및 결항 추이



주: 2025년 6월 24일 기준
자료: eeSea (검색일: 2025.07.02.)

- ▶ 올 하반기 물류시장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은 미국의 수요 둔화와 관세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유럽 시장의 수요 회복세에 따른 기회 선점 방안 마련 필요
 - 미주 시장의 경우, 상반기 과잉 선적 이후 미국 내 수입 수요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므로, 불필요한 선적을 줄이고 보수적인 선적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며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적정 재고수준 조정 및 현지 재고 소진 전략을 수립해야 함
 - 반면 유럽 시장은 수입 회복과 소비시장 활성화 흐름에 대응해 스팟 운임 상승에 대한 선복 선제 확보 전략과 더불어, 현지 물류센터(DC) 운영 확대와 유럽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 기회 선점방안 마련이 요구됨

참고자료: <https://www.joc.com> (검색일: 2025.07.03.)

『우수물류기업 인증제』 모집 공고

2025
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공고
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

2025.06.02(월) - 09.05(금)

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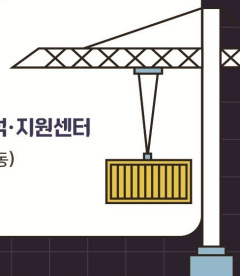
- [물류정책기본법] 제38조 및 [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]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(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)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
- [항만법] 제2조 제4호 및 [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]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
* 물류창고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(물류창고)로 인증 신청
- [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] 제2조 관련 별표 제2호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
 -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
 - 창고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을 갖출 것
 - 국내의 화물의 보관 실적 및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할 것
 -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
인증기준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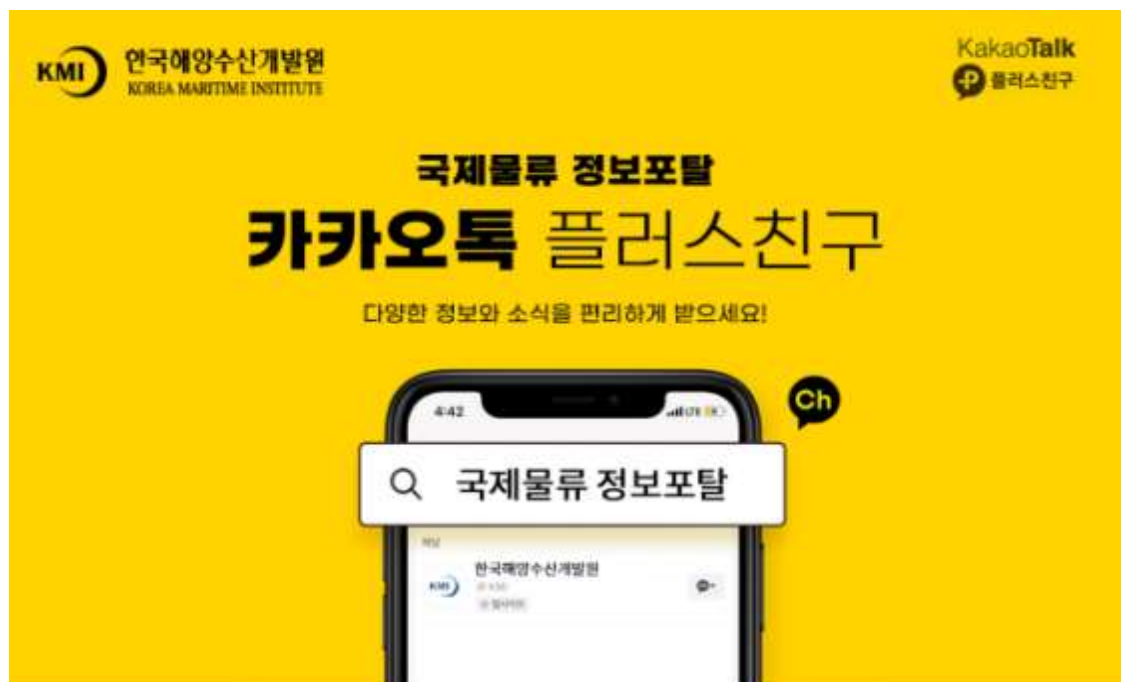
-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[우수물류기업 인증요령]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및 '우수물류기업 인증 심사항목 체계 및 심사 절차' 에 따른다
- 최종 결과발표(예정) : 2025년 12월 중

신청방법 및 신청 수수료

-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) 공지사항에서 인증신청서 및 관련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,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- 제출방법 : e-mail 접수(아래 메일 주소 참고)
- 신청 수수료 납부
 - * 신규 인증 : 300만원
 - * 납부 계좌 : 서류 제출시 아래 문의처에 별도 문의
- 문의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 - * 주소 : (49111)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 - * 문의 : 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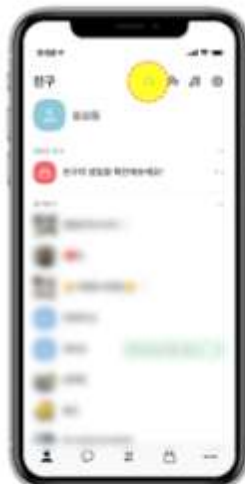
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